비빔밥시스템공사를햄버거시스템공사로

건설업은전산업 중원가 절감요인을가장 많이 갖고있다.
계절적 요인, 현장소장의개인능력, 협력업체기능공수준 등수많은요인에 따라원가에차이가난다.
아파트 현장으로 좁혀서 보면모든 공정을 표준화 · 모듈화할경우원가의15 20%까지도 낮출수 있다.

비빔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하나다. 밥을고슬고슬하게지어서보기좋은 대접에 담고 그 위에 미리 만들어둔 여러 가지 나물이며 고기, 달걀등을모양있게얹어비벼서먹으면그맛이일품이다. 필자도 입맛이 없을 때면 밥과 나물에 고추장과 참기름을듬뿍넣어쓱쓱비벼서먹곤한다.

일부에서는비빔밥을섞음의문화, 융합의문화로해석하기도한다. 일견수긍이간다. 이젠고인이된비디오아티스트백남준은이미섞인것이아니라여러가지를직접섞어서새로운것으로 만드는 것을' 비빔밥문화 라고규정하면서, 이문화가멀티미디어시대에는안성맞춤이라고지적하기도하였다.

유한기
한신공영이사
(인천가좌주공재건축현장소장)

하지만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가 보기에 비빔밥은 상품으로서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동일 재료로 만들었더라도 요리사의손맛에따라맛이천차만별이되는것이다. 반면, 서구음식의대표격인맥도널드햄버거는전세계119개국3만여개의매장에서어떤직원이만들든지같은맛의제품을제공하고있다.

그렇다면 비빔밥과 맥도널드 햄버거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바로 제품의 매뉴얼화이다. 즉, 비빔밥은요리사의경험과남이모르는비법에따라투입되는양과비율이달라지는데비해맥도널드햄버거는표준화및모듈화로동일한맛의제품을 만들수있는것이다.

물론 문화적차이에 따른 현상으로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최근비빔밥도 규격화를통해체인화가이루어지고있지만전세계의패스트푸드시장을석권하고있는맥도널드햄버거에비할바는아니다.

맥도널드햄버거를보면서필자는오래전부터' 아파트를맥도널드햄버거처럼지으면어떨까 라는생각을품어왔다. 아파트건설은 현장마다운영체계방식이다르고, 공사방식도다르다. 그리고미묘하지만 마감에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같아보이지만고객들에게제공되는아파트는조금씩 다를수밖에없고, 그미묘한차이는가끔회사에커다른 손실을가져온다.

만약햄버거처럼제품의매뉴얼화를통해소수의관리자로같은품질의아파트를만들어고객에게제공한다면 갈수록복잡하고다양해지는건설환경에서원가와공기를절감시킬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는아파트를보다 저렴한가격으로제공하는단초가될수있다.

건설업은전산업중원가절감요인을가장많이갖고 있다. 계절적요인, 현장소장의개인능력, 협력업체기능공수준등 수많은요인에따라원가에차이가난다. 아파트현장으로좁혀서보면모든공정을표준화 · 모듈화할경우원가의15 20%까지도낮출 수있다.

항상머릿속을떠도는이러한생각을실현해보기위해필자는그 동안현장에서여러번그가능성을타진해보았다. 하지만아직까지 성공모델을만들지는못하고있다. 시행착오를거치면서현장관리 기법에 있어 최상의 매뉴얼화를 정립해 시도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다. 실패이유는간단했다. 매뉴얼도사람이만들고시행하는이도 사람인데이모든일에직원들을자발적으로참여시키는데문제가 있었다.

맥도널드창시자레이크록은" 당신을위해일하는 사람을잘보살펴주세요. 그들이어떤일을이루었을때는크게칭찬해주세요 라고말했다. 이는맥도널드고객서비스정신의밑바탕이되었다.

아파트 건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모든 현장의 리더가 자신이 전조직원에게존중받기를원하는것과마찬가지로부하직원및근로자들에게 대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매뉴얼화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이는고객에게싸고질좋은동일한제품의아파트를 제공하는원천이될것임을믿어의심치않는다.CJ